

찬 양



따라 따라 예수님따라

공동기도문

♥부모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튼튼한 방패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Q1. 사울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지켜주셨나요?

(정답: 튼튼한 방패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주셨어요!)

Q2.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2026년 10월 넷째 주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총일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우르르 광광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작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봤지만 너무 작아서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아빠가 달려오셔서 커다란 우산을 짝 펴주셨어요. 비가 두드두드 떨어지는데, 우산 아래 있는 총일이는 비를 하나도 맞지 않고 뽕뽕 안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어려움)가 내렸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뽕뽕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사울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멋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시며 튼튼한 방패처럼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흩어진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섭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커다란 우산으로 총일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를 튼튼한 방패처럼 꼭 지켜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요!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양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다 같이

말씀봉독 사도행전 8장 1~4절 다 같이

성경이야기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공동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